

公州 大通寺址

出土瓦當 研究

朴 容 埴

目 次

- 一、序 言
- 二、大通寺址出土 百濟瓦當
- 三、大通寺址出土 統一新羅瓦當
- 四、結 論

一、序 言

大通寺는 忠淸南道 公州郡 公州邑 班竹洞에 所在하고 있는 寺址를 가리키고 있는 바 그 創建에 관한 記錄은 「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又於大通元年丁未爲梁帝創寺於熊川州名大通寺。(熊川即公州也時屬新羅故地然恐非丁未也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始創輿輪之丁未 未暇及於他郡立寺也)①

따라서 大通寺는 熊津城 百濟時代의 聖王 5年 A.D. 527年에 創建된 寺院임을 알 수 있다. 이 寺址의 伽藍制度는 平地에 南北을 主軸으로 하는 百濟寺院建築의 소위 一塔式伽藍制度에 依한 것이다. 이같은 大通寺의 一塔式伽藍制度는 扶餘의 軍守里寺址와 定林寺址의 百濟寺院造營으로 繼承되었고, 新羅의 皇龍寺와 芬皇寺가 이 形式을 따랐으며, 特別히 皇龍寺 九層塔建立에 百濟工匠을 請해 간 사실은 百濟伽藍制度의 傳授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日本의 古代寺院建築樣式으로 傳해져 日本伽藍制度의 一形式을 이루기도 하였다.②

大通寺址의 發見遺物을 살펴보면 原位置에 遺存되고 있는 幢竿支柱一

基를 비롯하여 國立公州博物館에 移置된 百濟石槽 一對와 石塔支柱獅子③ 및 佛寺築臺用石材 그리고 濟民川의 濟民川橋 아래에 박혀 있는 소위 大通橋의 橋脚臺石④ 등의 石造遺物과 百濟時代와 統一新羅時代에 屬하는 各種 瓦類가 있다. 이들은 모두 大通寺의 壯嚴을 立證하고 裝飾하는 훌륭한 資料들이 것이다. 또한 實測圖面⑤에 나타난 大通寺址는 前述한 百濟式伽藍制度를 갖추고 있으며, 大規模의 人 遺構를 들어내어 當代의 壯觀과 威容을 發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公州는 統一新羅時代의 熊川州로서 政治的 變遷에 따라 地方文化의 中心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때의 環境은 아마 傳統的인 百濟文化를 傳承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화된 時代의 社會的 要求에 對處하는 轉換期文化 내지는 新時代의 文化를 構想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狀況 아래 大通寺는 계속 이 地域의 大伽藍으로 君臨하였고, 또한 各種 施設을 擴充 補充하면서 宗教 信仰의 殿堂으로 維持 發展되었음이 유적, 유물, 특히 瓦當變遷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筆者는 百濟寺院으로서 創建年代가 確實하고 雄壯한 規模의 大通寺址에서 出土된 瓦當을 綜合 整理하여 百濟故地에서 瓦當形成과 그 變遷過程을 살펴 瓦當文化研究의 資料로 삼고자 한다.

특히 本研究는 公州郡 上城國民學校長 林復圭 先生이 日政때 직접 拓本한 것을 40餘年間 소중하게 간직한 古瓦拓本資料集을 接할 수 있는 機會를 가졌고, 그 속에서 大通寺址出土 瓦當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1973年 公州 班竹洞 176番地 尹明在氏宅에서 收拾된 새로운 大通寺址瓦當도 本研究에 큰 도움이 되었다. 紙面을 빌려 本研究를 위한 資料를 提供하여 준 분들에게 감사한다.

二、大通寺址出土 百濟瓦當

筆者는 지금까지 發見 收拾된 百濟瓦當을 그 構造特徵에 따라 大體로 다음의 5類型으로 分類하고 있다.

第1類型은 素瓣蓮華紋樣式瓦當이다. 이것은 瓦當面의 主文樣인 蓮瓣 안에 아무런 裝飾도 하지 않은 素瓣蓮華紋瓦當인데, 이것은 다시 瓣端處理의 특징에 의하여 여러 形式으로 區分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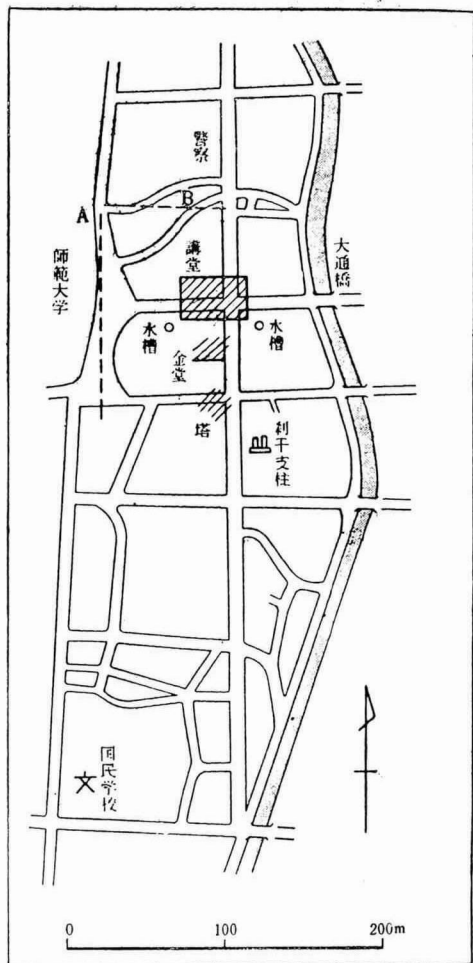


圖 1. 公州 大通寺址 實測圖

그 밖에 서까래를 장식한 서까래기와 1點과 지붕용마루 양쪽 머리에 얹어 上端側面을 장식한 망새기와(鴟尾) ㉑ 그리고 암기와에 「大通」 「通」 등寺院名을 넣은 文字瓦 등이 있다. 이들 瓦當資料를 本研究의 對象으로 삼아 考察기로 한다.

一、素瓣蓮華紋樣式 百濟瓦當

大通寺址出土 素瓣蓮華紋樣式 百濟瓦當은 蓮瓣의 瓣端處理의 形態와 그 特徵에 따라서 다시 圓形 反轉瓣端形式·圓形珠紋瓣端形式·尖形瓣端形式 瓦當의 3形式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圓形反轉瓣端形式 百濟瓦當(圖版 1의 1) ㉒

第2類型은 有紋蓮華紋樣式瓦當이다. 이것은 蓮瓣의 中央을 縱線刻하여 瓣端을 높은 소위 縱線裝飾蓮瓣形式과 忍冬紋·花心紋裝飾蓮瓣形式 등으로 區分되고 있다.

第3類型은 複瓣蓮華紋樣式瓦當이다. 이것은 蓮瓣을 複葉으로 裝飾한 것으로서 그 特徵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泗泚城時代의 後期作으로 推定되고 있다.

第4類型은 素紋樣式瓦當이다. 이것은 瓦當의 內外區面에 何等の 文樣裝飾을 加하지 않은 素紋瓦當으로서 泗泚城地域에서만 出土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第5類型은 巴紋樣式瓦當이다. 이것은 熊津城址와 泗泚城址에서 數種 收拾된 百濟의 特殊瓦當文樣으로서 注目되고 있는 바, 이는 百濟博文樣의 基本型이 되어 ㉓ 忍冬紋博·鳳凰紋博·蟠龍紋博 등 매우 華麗하고 技巧的인 文樣構成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瓦博文樣變遷研究上 貴중한 作品이 되고 있다.

公州 大通寺址에서 出土 收拾된 百濟瓦當 가운데는 前記 5類型中 第1類型인 素瓣蓮華紋樣式瓦當이 支配的이며, 第2類型인 有紋蓮華紋樣式瓦當 1點이 발견되었다.

이 形式의 瓦當은 圓形으로 構成된 瓣端을 反轉形態로 處理하였음이 特徵이다. 이것이 大通寺址出土 百濟瓦當으로서 注目되는 것은 中國 南北朝 梁의 影響을 받은 蓮華紋博에서 그 手法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形式의 瓦當 蓮瓣의 構成形態와 瓣端處理狀態의 特徵은 造營年代가 確實한 武寧王陵築造用博인 蓮華紋 또는 蓮華忍冬紋博의 蓮瓣과 그 表現技巧가 同形式인 點이다. 따라서 熊津城地域 百濟瓦當으로서는 그 造瓦時期가 비교적 빠른 6世紀初葉의 것으로 思料되며, 時代的 變遷에 따라 表現技巧가 洗鍊되고 多樣化되어 점차 百濟樣式化하여 간 것이다. 다만 武寧王陵 蓮華紋博은 瓣間에 輪廓線이 없는데 代해서 大通寺址出土의 이 瓦當은 瓣間을 장식하고 있음이 다른 점이다.

이 瓦當은 같은 形式의 公州出土瓦當 ㉓이나 武寧王陵 蓮華紋博에 비하여 中房을 넓게 構成하였고, 또 瓣區보다 낮게 形成하였으며, 細線圓帶를 둘러 瓣區와 區分하였다. 따라서 蓮瓣이 넓어 보인다. 蓮子配列은 他瓦例에서 처럼 中房中心의 蓮子둘레에 8顆를 配置하였다.

蓮瓣處理는 낮은 瓣根에서 점차로 隆起膨大시켜 素朴하고 圓滿하게 表現했으며, 거의 半圓形을 이룬 높은 瓣端을 自然스럽게 反轉시켜 律動美가 있다. 瓣間은 中房둘레의 8顆의 蓮子를 따라 環은 8條의 區劃

輪廓線을 두어 各瓣面을 區分하고 線端은 三角形狀을 突起시켜 瓣端間을 장식하였다. 周緣은 素文帶이다. 이것은 蓮瓣의 表現技巧上으로 보아 前記 武寧王陵用磚 蓮華紋樣과 共通되고 있음이 特徵이며, 中房 瓣區 外區의 周緣이 모두 調和와 均衡을 이룬 秀作이다.

이같은 形式에 속하는 公州出土 百濟瓦當에는 公州 鳳凰洞出土瓦와 公州附近出土瓦 등 三例^⑩가 있다.

泗泚城地域에서는 軍守里·舊衙里廢寺址와 定林寺址·中井里·扶餘馬來趾와 扶餘附近에서 出土되고 있으며 ⑩ 多樣하게 變遷하여 百濟瓦當의 한 類型을 이루고 있다.

(2) 圓形珠紋瓣端形式 百濟瓦當

이 瓦當의 특징은 圓形으로 構成한 瓣端을 突起된 珠紋으로 장식 처리한 것이다. 大通寺址 出土瓦當 가운데 이 形式에 속하는 瓦例가 가장 많다. 公州出土瓦當中 第2圖(圖版Ⅳ의3)와 第3圖(圖版Ⅳ의3) 및 圖版Ⅰ의5(圖版Ⅲ의3·圖版Ⅳ의3) 등은 모두 大通寺址 瓦當과 同樣이어서 筆者는 出土地의 差異는 있으나 大通寺系瓦當이라고 부르고 있다.

圖版Ⅰ의2(圖版Ⅲ의1、圖版Ⅳ의3)에서 보는 瓦當은 中國 南朝의 梁系瓦當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그 表現手法이 매우 自然스럽고 優雅한 百濟瓦當의 基本構造를 集約한 代表作이다. 이것은 南梁系의 形式에서 進一步하여 瓣端을 대담하게 反轉시켜 珠紋을 突起形成하였고, 南京 出土瓦當처럼 瓣中央을 융기시킨 것이 아니라 瓣根에서 瓣端으로 가면서 부드럽게 隆起 浮彫하여 圓滿한 表現技巧을 발휘하므로서 自然美와 律動美가 넘쳐 흐른다. 이것은 百濟特有的 簡素 溫雅한 洗鍊된 技法으로 연관을 表現한 熊津城址의 頂上의 作品이다. 이 形式의 瓦當의 中房은 他瓦例에 비하여 大體로 작은 편이며, 瓣面보다 낮게 마련된 것이 特色이고, 아주 낮은 瓣根에서 一段 浮彫形成하여 瓣區와 區劃하고 있다. 中房위의 연자배열은 中央의 1顆를 中心으로 6顆의 작은 연자를 均형있게 배치하였다. 瓣區의 各瓣間은 8條의 輪廓線으로 장식하였고, 그 線端은 三角形狀을 突起시켜 瓣端左右空間을 裝飾하고 있다. 素文帶로 이루어진 周緣은 他瓦例에 비하여 큰편이 아니다. 胎土는 細美하고 燒成



圖 2. 公州 附近 出土 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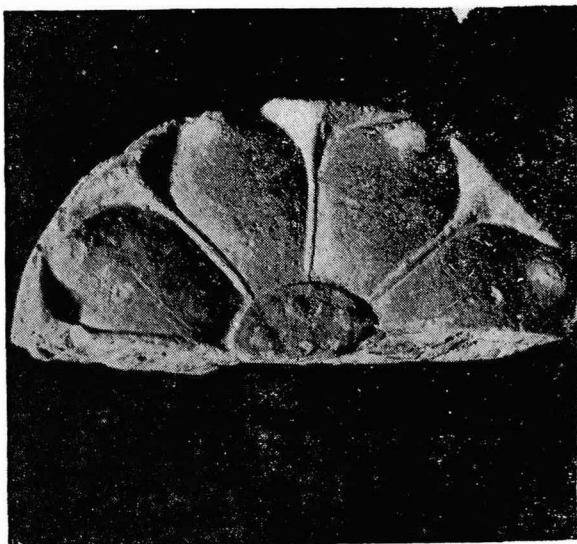


圖 3. 公州 鳳凰山 出土 瓦當

度는 비교적 견고하며, 色調는 灰褐色이다.

圖版 I의 3 大通寺出土瓦當^㉔은 그 形狀과 構造特徵이 前者와 같은 同一形의 것이다.

圖版 I의 4(圖版 III의 2、圖版 IV의 3)瓦當은 大通寺址뿐만 아니라 公州地域에서 收拾된 百濟瓦當 가운데 가장 完全한 形態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다. 圖版에서 보는 것처럼 이 瓦當은 百濟造形美術의 表徵이 오, 典型的인 百濟美를 지닌 資料이다. 胎土는 아주 精選된 細美한 것이며, 堅固하게 燒成되었고 色調는 灰青色이다.

第2圖(圖版 IV의 3)瓦當의 出土地는 公州附近으로 되어 있으나 瓣面 構成處理가 前記 圖版의 2、3、4 瓦當과 같다.

第3圖(圖版 IV의 3)의 瓦當은 公州鳳凰山南麓에서 발견 수습된 것인데 瓣區와 中房의 構造特徵이 이 形式의 大通寺址出土瓦當과 同一系의 것이다. 出土地點으로 보아 大通寺의 어떤 附屬建物에 使用된 建築材이었거나, 大通寺建築用材였던 것이 後代에 移動되어진 것일 것이다. 아주 精選된 胎土에 燒成도가 높다. 色調는 灰青色이다.

또한 公州 中洞 48番地出土(1972年 4月 公州師範大學 朴秉國 教授宅에서 올타리 改築中 收拾되었음)인 圖版 I의 5(圖版 III의 3、IV의 3)瓦當도 前記 圖版 I의 2、3、4瓦當의 構造特徵과 同一하다. 出土地가 大通寺境 밖에서 여러 疑惑이 있을 수 있으나 收拾當時 筆者의 調査로는 그 地帶에 瓦類堆積層이나 建物址로 推定할만한 遺構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百濟期의 어떤 建物址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後代에 移動되어 使用되어진 것으로 思料된다. 이 瓦當도 胎土와 燒成도는 前者 第3圖의 瓦當과 同一하고 色調는 灰白色이다.

圖版 I의 6(圖版 III의 4)^㉕ 大通寺址出土瓦當은 前記 大通寺址出土瓦當과 構造特徵이 대체로 同一系에 해당되나 다만 中房處理에 있어서 瓣區와 區分하는 細線圓帶를 두고 있음이 特異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圖版 II의 1 瓦當^㉖은 다른 大通寺址瓦當의 中房의 蓮子構成이 1+6인데 대하여 1+7로 되었을 뿐 다른 特徵은 發見할 수 없다. 지금까지 大通寺址에서 收拾된 百濟瓦當 가운데 圓形珠紋瓣端形式에

속하는 瓦當資料가 가장 많고, 公州地域出土百濟瓦當中 약 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大通寺址에서 이 形式의 瓦當이 集中的으로 出土되고 있는 것은 大通寺가 當대에 있어서 가장 큰 規模의 佛寺로서 장엄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周圍의 各種附屬建物이나 또 다른 建物들이 이 形式의 大通寺系瓦當을 즐겨 建築材로 利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形式의 瓦當은 泗泚城地域에서도 相當數 出土되고 있어 兩地域間의 文化上的 相關關係를 理解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㉗ 그러나 泗泚城에서 이 같은 形式의 瓦當이 出土되고 있는 것은 때때로 그 造瓦 時期決定에 異論을 提起할 可能性이 되고 있다.

筆者는 大通寺址出土의 圓形珠紋瓣端形式의 百濟瓦當은 大通寺創建當時에 제작된 것으로 推定한 바 있다.^㉘ 그것은 武寧王陵 築造用磚의 造磚時期를 A. D. 512年^㉙으로 본다면 蓮華紋磚과 蓮華忍冬紋磚 같은 연관을 造成한 造磚工의 技巧로 보아 이같이 洗鍊되고 造形美가 넘치는 大通寺瓦當같은 百濟瓦가 또한 造瓦工에 의하여 充分히 造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尖形瓣端形式 百濟瓦當(圖版 II의 2)^㉚
이 形式에 속하는 公州 百濟瓦當으로서는 大通寺址出土瓦와 公州 西穴寺址出土瓦當의 二例가 傳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 同形의 기와틀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와 類似한 것으로는 扶餘 定林寺中門址西北方出土瓦^㉛가 있으나 이와는 異形的인 感覺을 갖게 하는 作品이다.

이 瓦當은 다른 公州出土의 百濟瓦當과는 달리 瓦當全體의 크기에 비하여 中房을 넓게 마련하였고, 또한 瓣面보다 높게 隆起시켜 形成하였으며, 그 위에 中央의 1顆를 中心으로 둘레에 蓮子 4個를 配列하였다. 瓣區는 8瓣의 素瓣蓮華紋을 潤瓣으로 장식했는데 관면은 高浮彫法으로 동글게 膨大시켜 實感있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百濟瓦當과는 異質的인 瓣區意匠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中의 하나는 瓣間의 區劃輪廓線裝飾을 하지 않은 點이다. 그리고 瓣端을 뾰족하게 처리한 것이 이 瓦當形式의 特徵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연관구성의 특징은, 同時에 百濟瓦當의 연관 構圖 내지는 연관의 基本型的 변천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瓣端間의 空間處理는 他瓦例와 같

이突起된 三角形狀으로 장식하였다. 周緣은 역시 素文帶이다. 이 瓦當도 또한 中國 南朝系列에서 百濟化되어가는 過渡期的인 產物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그 造瓦時期는 다른 大通寺址出土 百濟瓦當과 마찬가지로 6世紀初期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同形의 瓦當이 出土된 西穴寺의 創建年代는 大通寺와 비급하거나, 아니면 寺利造營의 性格上 大通寺보다도 앞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二、有紋蓮華紋樣式(百濟瓦當(第4圖))

熊津城時代의 百濟瓦當은 北魏系와 南朝系의 影響을 입어 形成되었고, 이것이 점차 初期的 現象인 中國系의 影響에서 民族的嗜好와 百濟匠人의 卓越한 文化的 能力 및 作品表現의 獨創性이 反映되어 民族的 性格을 뚜렷하게 浮刻하여 百濟化하고 樣式化하여 完成시켜 나갔던 것이다.

1932年 4月 大通寺址에서 出土된 8瓣蓮華紋瓦當(第4圖)은 陽線의 輪廓線으로 蓮瓣을 둘러싸서 장식하고 있으며, 瓣面은 中央을 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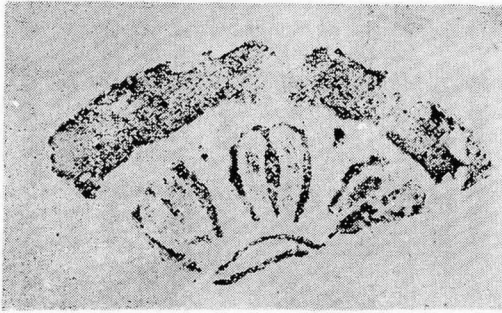


圖 4. 公州 大通寺址出土 瓦當

線으로 불륨을 높여 稜線을 만들어 二分하고 있다. 이같이 蓮瓣中央에 縱線을 높게突起시켜 裝飾한 瓦例는 扶餘地域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瓣端間에는 珠紋을 두고 있다. 周緣은 素文帶인 것 같다. 中房構成은 破損이 심하여 確認할 수 없다. 色調는 淡灰色을 이루고 있으며, 柔軟하게 燒成되었다.

이 瓦當의 造瓦時期도 역시 前記 類型的 瓦當과 같이 大通寺創建當時인 6世紀初葉으로 보아서 大過 없을 것이다. 이러한 推定이 可能하다면 創建當時 또는 百濟時代의 大通寺建

物은 여러 形式의 수막새기와를 適宜 混用配列하여 屋蓋面을 다양하게 構成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大通寺의 壯觀은 다른 石造物造營과 함께 當代 佛寺建築의 大宗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實物을 볼 수 없어 正確한 構造特徵을 살펴 볼 수 없으나, 이 瓦當은 文樣系統으로 보아 中國 山西省 大同故城址出土의 北魏瓦系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蓮瓣表現手法는 大同雲崗石窟寺出土의 北魏瓦當과 同系인 高句麗瓦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高句麗는 北朝와 接하고 있었던 關係로 文物上의 交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遺物上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高句麗의 北魏瓦樣式이 北朝와 直接 交通치 못했던 百濟에 어느 程度 影響했을 것이며, 다시 新羅에 傳播되었던 類例를 볼 수 있다. 또한 滿州地方의 遺物中에도 北魏式瓦當樣式이 많이 遺存하고 있어 그 流傳의 經路가 명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百濟瓦當形成에 있어서 北魏系의 原型은 그 遺例와 文物交涉關係로 보아 그리 많이 傳受된 것 같지는 않고, 大部分 南朝系의 瓦當形式이 수입되어 百濟化되어 갔던 것이다.

三、素瓣蓮華紋樣式(서까래기와(圖版II의 3, III의 5))

이 서까래기와는 公州出土 唯一의 서까래기와로 등장된 것이다. 그러나 輕部慈恩著의 「百濟遺跡의 研究」에서 大通寺址出土로 밝혀지고 있는데, 같은 著者의 「百濟美術」에서는 益山彌勒寺址出土 百濟古瓦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同一한 서까래기와의 出土地에 대해서 二重으로 記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疑問이 생기고 있다. 더구나 現在로서는 實物이나 研究資料를 接할 수 없음으로 出土地에 대한 確定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大通寺址을 包含한 一帶의 土木工事가 日政에 이루어졌을 무렵 大通寺址 作業現場에 參觀한 바 있었던 公州師範大學 柳濟敬教授의 記憶(當時 公州高普學生)에 따르면 서까래기와 2, 3點과 망새(鴟尾)기와 조가리가 大通寺 講堂址 西側面에서 收拾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圖版 II의 3 서까래기와는 大通寺址出土瓦일 可能性도 있다. 뿐만 아니라 大通寺는 百濟當時의 伽藍으로서는 가장 차임새 있고 雄壯하며 壯嚴한 佛寺建築이었기 때문에 서까래기와를 建築用材로 썼을 것으로도

검작된다.

이 기와의 構造 特徵을 살핀 보면 素瓣蓮華紋樣式瓦로서 瓣端을 反轉시키고 있다. 現在는 中房一部와 3葉의 蓮瓣이 남아 있을 뿐이나 원래는 8葉蓮瓣이었고, 蓮瓣構成은 불륨이 크고 등글게 조성되었다. 瓣間의 區劃線은 別途로 두지 않고 瓣端間은 突起된 三角形狀으로 장식하였다. 瓣區보다 一段 높게 隆起시켜 構成한 中房은 굽은 테두리를 두르고 그 위를 花蕊紋으로 꾸몄으며, 中央에 釘孔을 두르고 그 둘레에 蓮子를 배치하였다.

이와 類似한 서까래기와로서는 扶餘 軍守里寺址出土 서까래기와 ㉞와 扶餘佳增里出土 서까래기와 ㉟ 등이 있고, 扶餘金剛寺址出土 서까래기와 ㉞ 가운데 이와 거의 같은 蓮瓣表現을 한 形式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 同類型 즉 中房構成의 特徵이나 瓣區의 表現形式이 꼭 같은 서까래기와는 다른 地域의 어떤 建物址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어 더욱 注目되는 稀貴한 瓦當資料가 되고 있다.

四、망새기와(鷓尾)(第5圖)

百濟時代에 지방 용마루의 兩端側에 망새기와를 얹어 장식한 例는 當代의 佛寺址에서 多數 出土되는 事例로 알 수 있다. 大通寺의 建物에도 망새기와를 썼음이 立證되는 唯一의 기와가 第5圖의 것이다. 이것은 大通寺 講堂址 西側面에서 收拾되었는데, 板表面에 넓고 높은 中房을 두르고 그 둘레에 蓮華紋을 새겨 돌렸다. 마치 瓦板같이 생긴 이 기와가 용마루 양끝을 장식한 망새기와로 생각된다. 이 같은 망새기와는 扶餘 扶蘇山出土의 類例에서도 發見되고 있다. ㉟

五、「大通」寺院名銘 文字瓦(第6、7圖)

文字瓦란 美術史研究는 勿論 文獻上の 記錄을 確證케 하여주는 考證的 資料가 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갖는 學術的 價値와 意義는 莫重한 것이다.

公州出土의 文字瓦類는 첫째, 公山城에서 「流」의 銘文瓦片이 發見되어 三國史記에 記錄된 東城王 때 세운 臨流閣 址를 推定케 한 遺跡址銘

文字瓦와, 둘째, 公州의 故地名인 「熊川」銘의 文字瓦, 셋째, 寺院名을 밝힌 「大通」·「通」·「西穴寺」 등의 文字瓦, 넷째, 그밖에 「三寶」·「熊川官」 ㉞·「熊津官」 「官」銘入 文字瓦 등이 있다.

大通寺院名을 밝힌 「大通」·「通」銘入瓦의 발견과 西穴寺名을 밝힌 「西穴寺」銘入瓦 등은 다같이 百濟때 創建된 兩寺址의 寺院名 確定을 해 주었고, 특히 「大通」은 三國遺事의 大通寺 創建記錄을 考證해 주었으며, 이는 또한 「西穴寺」銘入瓦와 함께 名寺院址의 位置를 確證해 주는 貴重한 學術資料가 되고 있는 것이다.

大通寺名을 銘入한 「大通」(第6圖)이란 文字瓦는 瓦面을 一段 낮게 圓形으로 形成하고 그안에 字徑 1.5cm의 크기로 右縱書한 것이다. 이의 古拙한 字體와 運筆은 優雅한 百濟美術의 一面을 實感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瓦片은 細美한 胎土에 堅固하게 燒成되었고, 灰褐色의 色調를 띄고 있다.

그리고 같은 大通寺址出土 「通」銘入瓦(第7圖)는 「通」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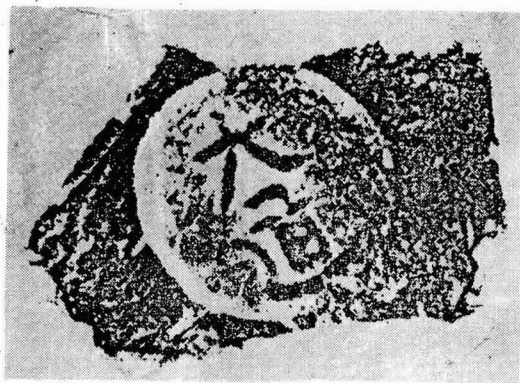


圖 6. 「大通」銘 文字瓦 (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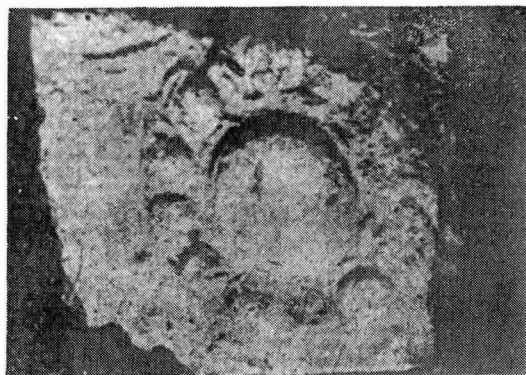


圖 5. 公州 大通寺址出土 망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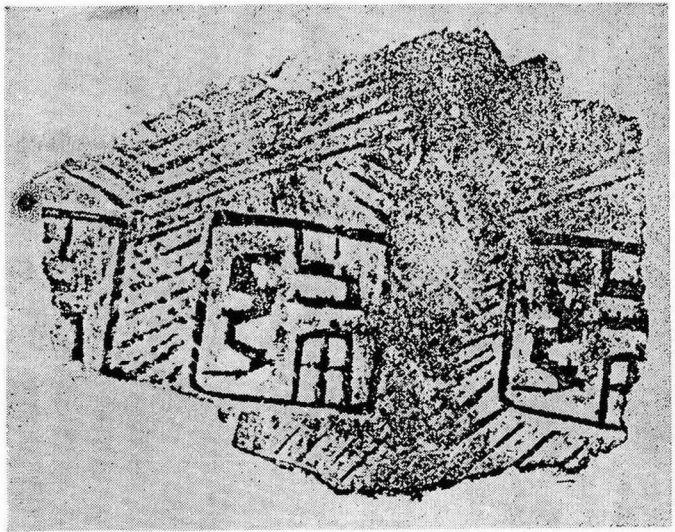


圖 7. 「通」銘文字瓦拓本

濟伽藍으로서의 짜임새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三、大通寺址出土統一新羅瓦當(圖版Ⅱ—4、5、6)

지금까지 大通寺址에서 發見收拾된 統一新羅時代의 수막새기와는 모두 3點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蓮瓣構成의 表現手法로 보아 다같이 素蓮垂紋樣式瓦當에 該當된다. 그리고 前述한 百濟素蓮垂紋樣式瓦當에서처럼 瓣端構成의 特徵에 따르면 無反轉瓣端形式瓦當과 反轉瓣端形式瓦當 그리고 尖形瓣端形式瓦當의 3形式으로 各各 分類된다. 이들은 一見해서 大通寺址 百濟瓦當이나 다른 百濟瓦當에서 풍기는 瓦當 特有의 構成美와 區別되고 있으며, 또한 百濟瓦當에서 共通의 것으로 찾아 볼 수 있는 一般의 이고 典型的인, 소위 百濟의 瓦當美가 缺如되고

를 圖案化하여 右書하였고, 역시 細美한 胎土에 高火度를 유지하고 灰白色이며 字徑은 2.5cm이다.

그 밖에 長方形의 區劃 안에 「大通」이라고 右縱書한 것이 있다. 이같이 大通寺址에서는 三種類의 大通寺院名을 銘入한 文字瓦가 發見되어 大通寺의 位置를 考證해 주었고, 百

있음을 쉽게 發見할 수 있는 作品들이다. 이것은 瓦當面을 構成 裝飾하는 主文樣인 蓮瓣形態에서가 아니라 中房과 外區의 周緣構成形態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中房構成狀態가 百濟瓦當形式과는 다르며, 周緣構成에 있어서도 連珠紋을 장식한다가 內緣을 別途로 處理形成한 것이다. 周緣에 連珠紋을 두른 것은 百濟下代 磚文樣에서 그 類例를 발견할 수 있지만 百濟瓦當의 裝飾文樣으로서는 一般化된 形式이 아니다. 그러나 蓮瓣形態에서만은 百濟瓦當에서 보는 蓮華紋構成形式과 大同小異함을 抽出해 낼 수 있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瓦當들의 基本構成要素의 하나가 되는 細美한 胎土의 組織에서도 百濟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瓦當의 造成時期는 百濟瓦當의 基本形式을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形態를 달리하는 構圖로 바뀌어가는 歷史와 文化의 轉換期 즉 百濟에서 統一新羅初에 걸치거나 아니면 統一新羅初期인 7世紀末의 作品으로 推定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3形式의 수막새기와들은 百濟末 내지 統一新羅初이거나 統一新羅初期에 大通寺의 再造營事業이나 佛寺의 大修葺이 이루어졌을 때 補充材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瓦當은 百濟瓦當의 基本構圖에서 時代的 變遷에 따라 점차로 그 形式을 多樣化하여 새로운 瓦當의 基本形式을 模索하려는 時代的 文化的 背景과 要請에서 비롯된 轉換期的 產物로서 瓦當文樣의 변천과 移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 形式系列에 속하는 統一新羅瓦當이 公州 西穴寺址에서 多量 發見 收拾된 바 있으며, 또한 西穴寺址出土 統一新羅瓦當의 母型들은 이들 大通寺址出土 3形式의 瓦當에서 찾을 수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 3點의 瓦當은 百濟系에서 公州地域의 統一新羅瓦當을 形成하여, 이른바 獨自의인 地域瓦當文化를 形成한 資料로서 注目되고 있으며, 아울러 西穴寺系의 統一新羅 瓦當文樣構成에 決定的인 影響력을 주었고, 公州地域 統一新羅瓦當의 基本形式으로 繼承되고 더욱 發展 完成되어 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大通寺와 西穴寺는 公州地域의 百濟伽藍으로서 각각 平地伽藍과 山地伽藍의 特色을 代表하면서 統一新羅 때까지 建築材의 相互開發과 補充을 함께 도모하여온 相關關係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각 形式에 따른 構造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無反轉瓣端形式 瓦當(圖版 II의 4、III의 6) ㉔

이 瓦當의 特徵은 中房構成에서 쉽게 發見할 수 있다. 즉 中央部の 中房은 瓣面과 거의 같은 높이로 隆起시켜 形成하고 蓮子를 中心部の 큰 蓮子를 中心으로 蓮瓣따라 8顆를 돌렸다. 그리고 瓣區와의 사이에 넓은 圓帶를 두고 그안에 20餘個의 花蕊紋을 線條로 장식한 特異한 例의 瓦當이다. 이와 類似한 例의 瓦當은 西穴寺址에서 發掘收拾된 八葉 復瓣蓮華紋瓦當 ㉕의 中房構成形式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瓦當의 中房構成形式은 西穴寺址 復瓣蓮華紋瓦當의 基本形式으로 直接 連結되어 發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公州地域의 統一新羅 瓦當文樣變遷過程研究上 重要視되고 있다.

蓮瓣構成은 넓은 中房으로 因하여 짧고 넓으며 그리 높지 않은 불륜을 보이고 있다.

瓣端은 反轉시키지 않은 채 瓣端側의 圓帶를 따라 圓形으로 構成하였다. 그리고 各瓣間은 花輪의 輪廓線으로 장식하였다. 비교적 좁은 周緣帶에는 連珠紋을 施紋한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百濟瓦當의 一般的인 特性과 區分되는 意匠이다. 이같은 特徵은 時代的 變遷에 따라 瓦當의 새로운 基本型을 追求하려는 瓦工들의 着想에서 비롯된 形式의 産物일 것이다.

二、反轉瓣端形式 瓦當(圖版 II의 5、IV의 1、IV의 3)

이 瓦當은 1973年 6月 公州 班竹洞 176番地 尹明在氏宅 東쪽 苗園에서 出土된 것이다. 이곳은 第1圖인 大通寺址 實測圖面에서 보는 講堂址 東側에 位置하는 地點이다.

이 瓦當의 構造 特徵을 살펴 보면 먼저 굽은 테두리로 瓣區와 區分形成한 中房은 불륜을 一層 높여 構成하였고, 中心部와 그 둘레에 蓮子를 두었으나 造瓦過程에서 UNG개진 것 같아 分明치 않다.

蓮瓣은 모두 七葉單瓣으로 構成된 것이 異例의인데 瓣中央部를 隆起시켜 도도록하게 만들었고, 瓣端쪽을 一段 낮추었다가 다시 反轉시켜 꾸미고 있다. 그리고 瓣間은 輪廓線으로 區劃하고 있는데 線端은 百濟

瓦當의 例와 같이 三角形狀을 이루고 있다. 그 밖은 굽은 圓線帶로 瓣區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百濟瓦當의 一般的인 基本型과 區別되는 特徵이다.

그리고 瓣區와 外區 周緣間의 內緣은 굽은 一條의 圓線帶로 장식하고, 그위에 珠紋을 드물게 施紋하고 있음도 特異한 點이다. 이 瓦當形式은 西穴寺址에서 出土된 統一新羅時代의 素瓣蓮華紋樣式瓦當 ㉖으로 발전된 原型으로 생각된다. 周緣은 素紋帶로 높고 넓게 形成하였는데 이것은 百濟瓦當의 基本形式을 마르고 있다. 胎土는 精選되어 細美하고 高火度로 구어진 것이며, 灰白色의 色調를 지니고 있다.

三、尖形瓣端形式 瓦當(圖版 II의 6、IV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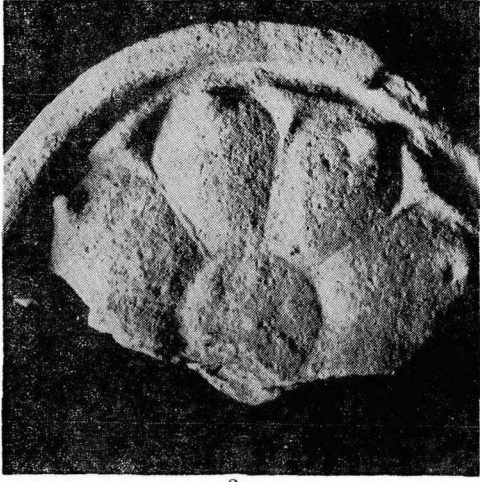
百濟의 故地 公州에서 出土된 이 瓦當 ㉗은 中國 南京出土瓦當 ㉘과 同類型인 點이 特記할 事實이다. 따라서 이 瓦當의 祖宗은 前代에서 처럼 中國 南京의 古瓦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며, 中國 六朝時代의 故地인 南京과 百濟의 故地인 公州 즉 兩地域間에는 文化的인 相互交流가 展開되고 있었음을 立證하는 事例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瓦當의 造瓦經緯를 百濟期 또는 百濟滅亡後라 할지라도 唐의 勃興以前 六朝時代에 이미 百濟에 傳受된 것이라고 指摘하는 學者 ㉙도 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一部 百濟瓦當의 形式을 지니면서도 百濟瓦當의 一般的이고 普遍的인 基本形式에서도 벗어나는 類型의 瓦當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六朝時代의 南京瓦形式이라 할지라도 百濟 때에는 一般化된 瓦當形式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統一新羅初期以來 普遍化된 瓦當形式으로 받아들여진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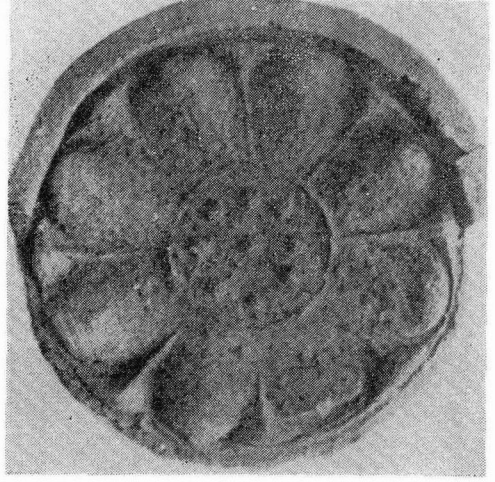
그理由는 統一新羅時代의 多樣한 瓦當의 基本形式이 이것을 原型으로 더욱 발전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西穴寺址에서 同形의 瓦當이 數點發掘收拾된 바 있는데 ㉚아마 同一한 造瓦工이 만든 것을 兩寺利에 供給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되어 더욱 注目을 모으고 있다.

어쨌든 이들 大通寺址出土瓦當은 각기 다른 形式의 瓦當으로서 旣成形式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變化를 가져오려는 意圖와 屋蓋數葺裝飾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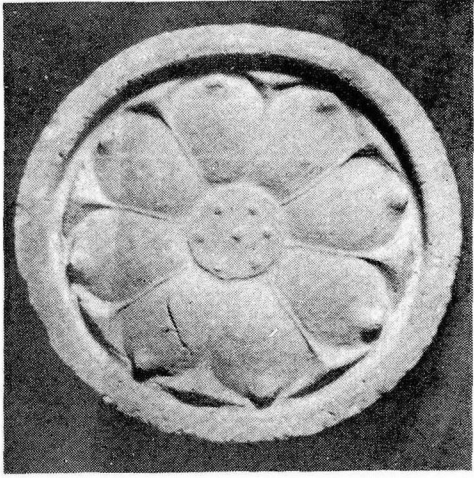
圖 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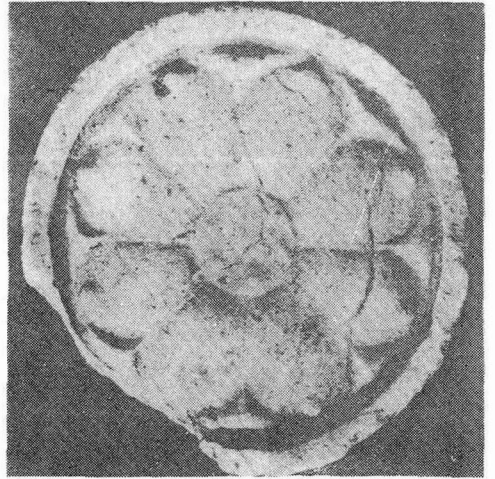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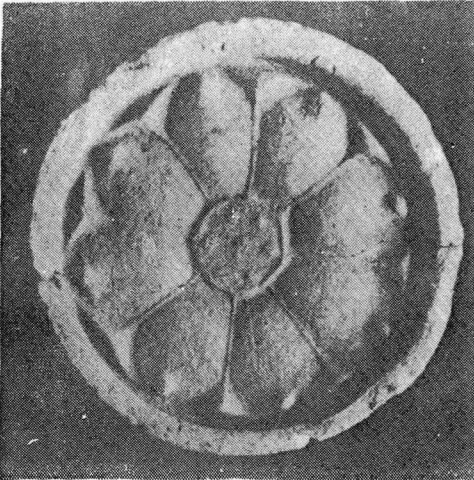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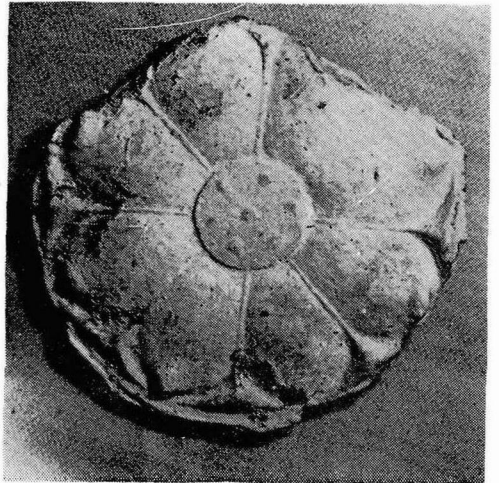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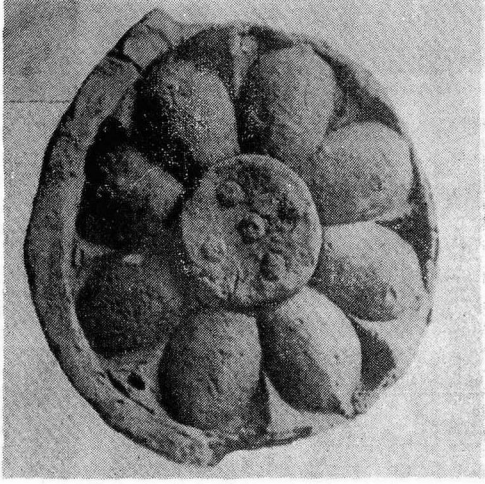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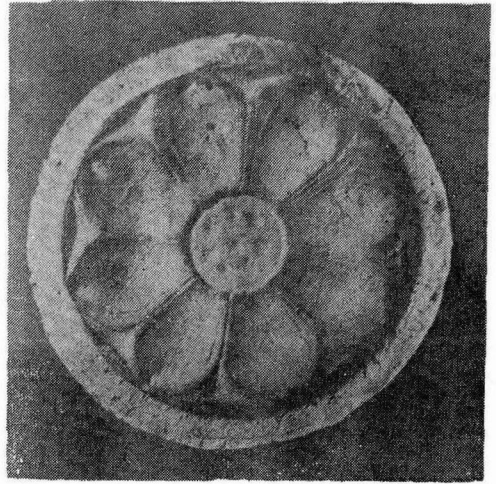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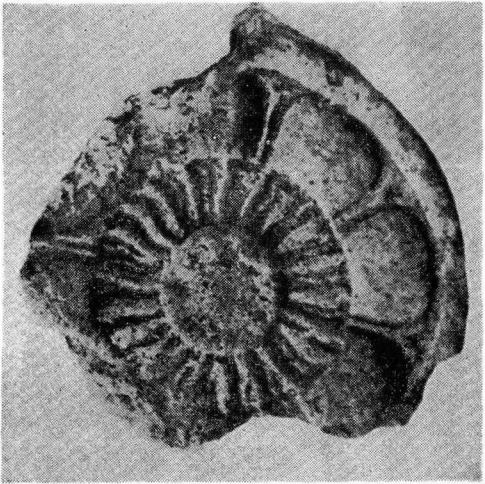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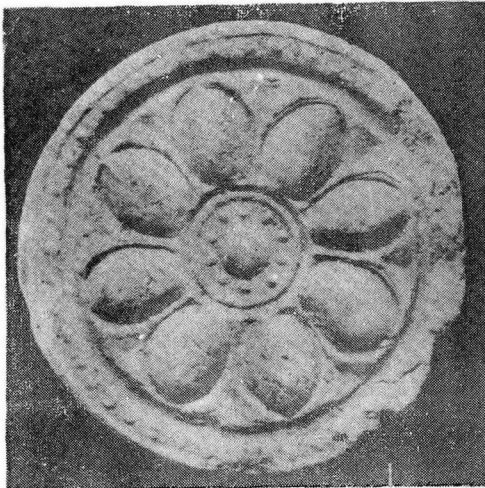
1.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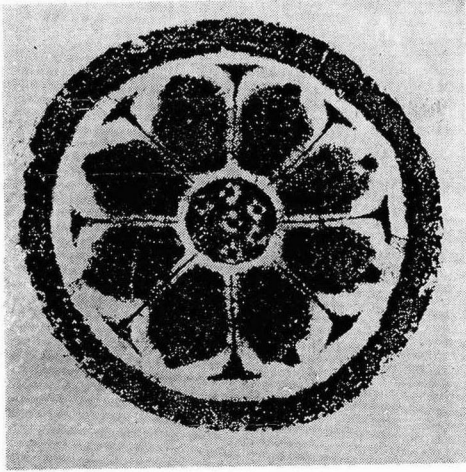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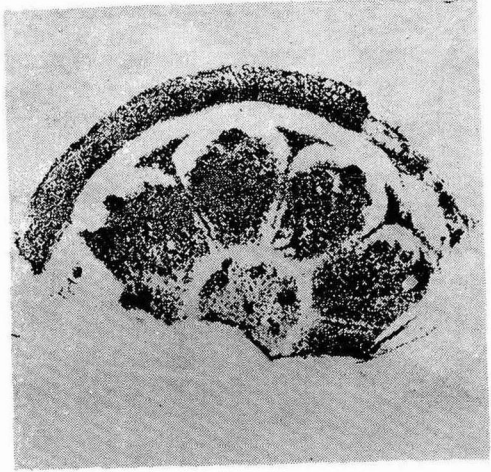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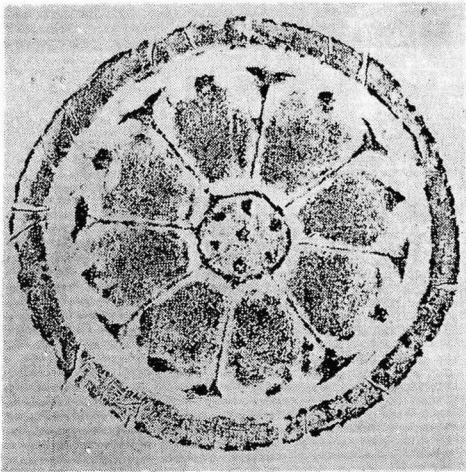
圖 版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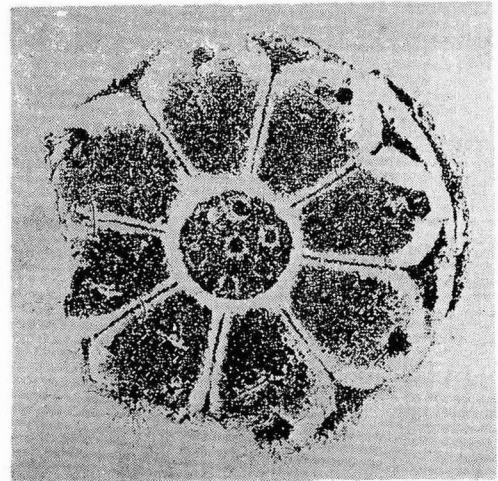
2. 圖版 I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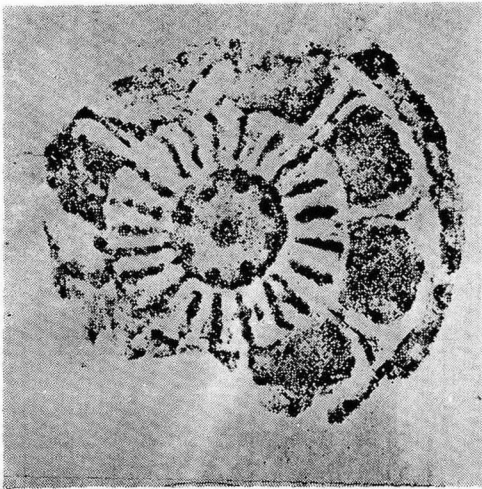
1. 圖版 I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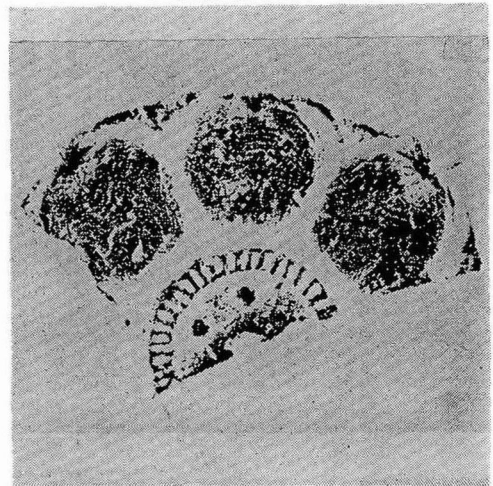
4. 圖版 I의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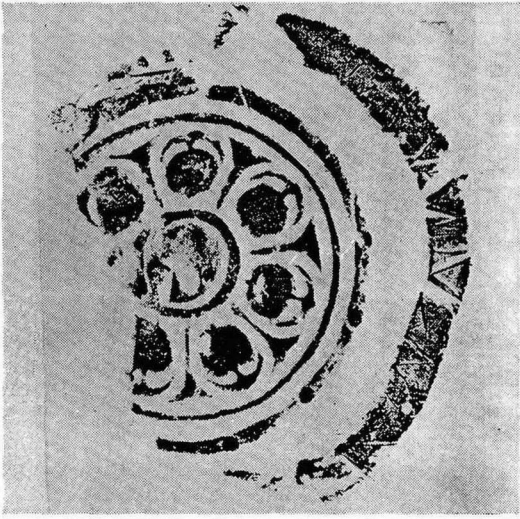
3. 圖版 I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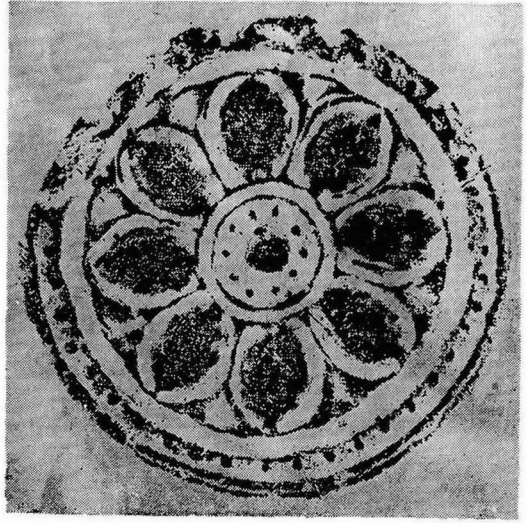
6. 圖版 II의 4



5. 圖版 II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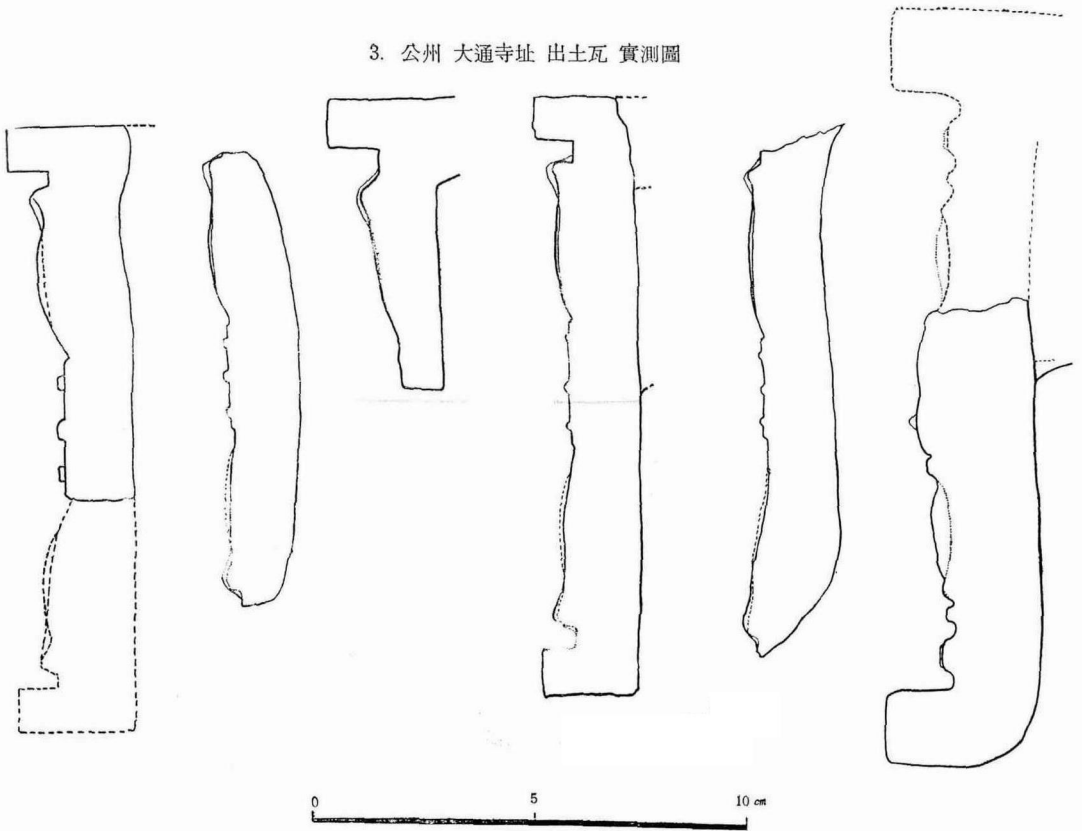


2. 圖版 II의 6



1. 圖版 II의 5

3. 公州 大通寺址 出土瓦 實測圖



圖版 I의 2

第 3圖(本文)

第 2圖(本文)

圖版 I의 4

圖版 I의 5

圖版 II의 5

多樣性的 效果를企圖하려는 匠人들의 文化的인 結晶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이들은 百濟瓦當形式에서 統一新羅瓦當의 基本形式을 構築하는 原型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大通寺址出土 統一新羅瓦當들은 時代的 轉換과 더불어 瓦當形式의 變遷까지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3點의 瓦當들이야말로 瓦當變遷研究와 類型研究의 貴重한 對象이 되는 資料인 것이다.

이 尖形瓣端形式瓦當의 構造特徵을 살펴 보면, 瓣面보다 낮게 造成한 中房은 圓線帶로 瓣區와 區分하였고, 他瓦例에서 보는 中心部의 蓮子를 輻등하게 크고 둥글게 만들어 놓고 있음이 異例의이며, 그 둘레에 10顆의 작은 蓮子를 두었다. 이는 中國 南京出土 古瓦形式^㉑에서 그 源泉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中房構成의 劃一性에서 벗어나 새로운 中房意匠을 찾는 匠人의 創意的인 構圖에서 形成된 것으로 보여진다.

八葉의 蓮瓣은 素瓣으로서 瓣中央을 유달리 높게 隆起浮彫시켰고, 瓣端은 尖形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表現技巧는 大通寺址와 西穴寺址出土 尖形瓣端形式 百濟瓦當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따라서 蓮瓣構成은 百濟的인 特徵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蓮瓣 둘레의 장식은 百濟瓦例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細線의 輪廓線으로 장식하였고, 그 線端은 역시 三角形狀을 만들어 瓣端間을 메우고 있다. 周緣에는 小珠의 連珠紋을 놓고 있다. 이 周緣構成과 異形的인 中房形態가 이 瓦當의 構造特徵인데, 이것이 바로 百濟瓦當의 通例에서 벗어나는 技法인 것이다.

四、結 論

公州 大通寺는 百濟寺院으로서 創建年代가 確實하고, 平地에 南北을 主軸으로 하는 一塔式伽藍制度를 이룬 것인 바, 이는 新羅와 日本의 古代寺院建築樣式으로 傳해져 그들의 伽藍制度의 一形式을 이루게 하였다. 이같은 大通寺는 그 遺蹟과 發見出土遺物로 보아 壯嚴한 百濟寺院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通寺址出土 瓦當은 瓦當編年研究와 類型研究등 瓦當變遷과 아울러 古代文化形成過程을 考究하는데 있어서 貴重한 學術的 資料가 되고 있다.

大通寺址에서 收拾된 瓦當은 百濟瓦當과 統一新羅瓦當으로 大別되

고, 百濟瓦當은 甬臺새기와 · 서까래기와 · 망새기와 · 文字瓦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막새기와는 모두 單瓣蓮華紋瓦當에 속하는데 이들은 다시 蓮瓣의 構造特徵에 따라 素瓣蓮華紋樣式과 有紋蓮華紋樣式瓦當의 두 類型으로 分類된다. 素瓣蓮華紋樣式瓦當은 中國 南朝系의 類型에서 百濟瓦當으로 形成發展된 것인 바, 이는 다시 그 瓣端의 特徵에 따라 圓形反轉瓣端形式 · 圓形珠紋瓣端形式 · 尖形瓣端形式瓦當으로 區分된다.

圓形反轉瓣端形式瓦當은 造塼 造營年代가 밝혀진 武寧王陵과 王陵築造用 蓮華紋塼 또는 蓮華忍冬紋塼과 蓮瓣形態가 同様이어서 公州出土인 같은 形式의 瓦當과 함께 大通寺 創建當代에 造瓦된 形式의 瓦當으로 推定한다. 이 瓦當은 百濟期의 圓形反轉瓣端形式瓦當의 基本型으로 더욱 발전되었음을 扶餘地域出土瓦例에서 發見할 수 있다.

圓形珠紋瓣端形式瓦當은 瓣端反轉技巧의 發展形式으로부터 樣式化되어, 百濟瓦當의 基本形式의 하나로 一般化되어 갔다. 이 形式의 大通寺址出土瓦當은 그 造瓦時期를 역시 大通寺創建과 같은 年代로 推定한 바 있으며, 百濟瓦當文化의 集約品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形式의 瓦當은 扶餘地域에서도 相當數出土되고 있으며, 日本의 飛鳥寺와 四天王寺를 비롯하여 여러 寺址에서도出土되고 있어 瓦當文化의 傳播經緯와 對外의 發展을 立證하는 事例가 되고 있는 것이다.

尖形瓣端形式瓦當은 역시 中國 南朝系에서 百濟的인 瓦當의 基本型을 찾으려는 過渡期的인 所産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造瓦時期는 6世紀初葉으로 推定되며, 百濟瓦當의 文樣構成變遷研究上 貴重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다음 有紋蓮華紋樣式瓦當은 蓮瓣中央을 隆起된 縱線으로 장식한 唯一의 大通寺址出土瓦이다. 이는 北魏 · 高句麗系의 類型에 속하는 百濟瓦例가 되는 것으로서, 역시 百濟瓦當形成研究上 注目되는 瓦例가 되는 것이다.

公州 大通寺址出土瓦當은 北魏 · 高句麗系와 南朝系의 瓦當文化를 受容하여 形成되었다. 그러나 時代的 變遷과 더불어 百濟人의 溫柔 · 素朴하고 平和的인 民族性과 文化的인 嗜好는 百濟瓦當의 基本模型을 定着

화하였고, 百濟匠人の卓越한 創造的인 文化能力은 大通寺의 여러 形式의 瓦當造成에 反映되어 瓦當文化의 基盤을 構築하고, 百濟瓦當의 基本形式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6世紀中葉以後의 百濟瓦當은 大通寺瓦當의 形式을 中心으로 民族文化의 性格을 뚜렷하게 浮刻하여 더욱 多様な 類型으로 發展하여 갔던 것이다.

또한 서가래기와와 망새기와의出土는 當代 大通寺建築의 壯嚴을 연상케 하는 소중한 資料들이며, 佛寺의 지붕構造와 敷葺狀況을 說明하여 주는 稀貴한 事例가 되고 있다.

그리고 「大通」 「通」 銘入瓦의 文字瓦는 文獻上의 記錄과 大通寺址의 位置를 考證해 주었고, 百濟瓦當의 多様性을 立證하고 있다.

大通寺址出土 統一新羅瓦當은 모두 3點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素瓣蓮華紋樣式瓦當에 속한다. 그러나 形式別로 分類해보면 無反轉瓣端形式·反轉瓣端形式·尖形瓣端形式으로 區分된다. 이 3形式의 瓦當들은 部分的으로 百濟瓦當의 基本類型을 지니면서도, 百濟瓦當에서 발견할 수 있는 瓦當 特有的 構成美나 構造的인 通例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歷史의 轉換期的 產物 즉 百濟末에서 統一新羅初期 또는 統一新羅初期인 7世紀末의 作品으로 推定해서 좋은 것이다.

이 3形式의 瓦當들은 다같이 百濟系에서 地域瓦當文化를 獨自的으로 形成하여, 公州地域의 統一新羅瓦當으로 樣式化되어 계승 발전되었다. 그것은 公州 西穴寺址에서 多量收拾된 統一新羅瓦當들의 基本形式이 大通寺址瓦當形式의 決定的인 영향을 받아 形成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通寺址 出土瓦當들은 6世紀初葉에 中國南·北朝系와 高句麗系의 受容으로 形成되었고, 百濟人의 뛰어난 文化的 創造力은 바로 大通寺 創建年代에 百濟瓦當의 基本類型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곧 百濟瓦當構成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通寺址瓦當은 百濟末 統一新羅初期인 7世紀末에는 公州地域 統一新羅瓦當의 原型을 마련하였고, 그것은 곧 多様な 統一新羅瓦當의 類型을 構成하는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大通寺址 出土瓦當은 百濟瓦當과 新羅 및 日本의 古代瓦當, 그리고 統一新羅의 瓦當文化로 繼承 發展되고, 傳播 擴大하여 간 것이다.

註

① 三國遺事·原宗興法條. 筆者註: 「梁帝」는 中國南朝梁武帝를 가리킨다. 「大通」은 梁武帝의 年號이다. 따라서 「大通元年」은 百濟聖王 5年 A. D. 527年에 該當된다. 現在 公州 斑竹洞에 大通寺址가 있다. 그러므로 大通寺는 熊津城百濟時代에 創建된 佛寺로서 「時屬新羅故地」 및 「始創輿輪之丁未」云云은 誤記인 것이다.

② 秦良燮: 百濟寺院의 伽藍制度 p. 114. 百濟研究 제 2집.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1

③ 輕部慈恩: 百濟遺跡의 研究 圖版 21 吉川弘文館 東京 日本 1971
筆者註: 實測圖面上에 大通橋로 表示된 大通橋의 原位置에 대한 異見인 圖面上의 大通橋에서 南쪽으로 두번째 다리 濟民川橋 밑에 百濟式治石技巧로 다듬어진 橋脚臺石 4個가 現存하고 있다. 이것은 方形臺石을 다시 一段 낮은 菱形으로 흔들어서 橋脚을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菱形橋脚石柱를 세운 것은 水流의 저항을 피하려는 意圖에서였을 것이다.

④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p. 31 插圖 2 圖 熊津城下大通寺址實測圖

⑤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p. 225-226. 第 52圖 左 寶雲舍 日本 東京 1946

⑥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p. 108-111.

⑦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46의 中左

⑧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35의 4
C 拙稿: 公州出土의 百濟瓦當에 關한 研究. p. 53-54. 圖 4, 5, 6, 7, 8, 百濟文化 第 6輯 公州師範大學附設百濟文化研究所 1973

⑨ 拙稿: 前揭註 ⑧-① 論文 p. 51. 圖 1, 2

⑩ 拙稿: 前揭註 ⑧-① 論文 p. 51-52.
拙稿: 百濟瓦當에 關한 研究 p. 6-18. 公州教大論文集 第 5輯 1968

⑪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47의 上左

⑫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47의 下右

⑬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47의 上右

⑭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33의 下

⑮ a 拙稿: 前揭註 ① 論文 p. 48-49.
b 百濟瓦磚圖譜 圖 11-19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2

⑯ 拙稿: 前揭註 ⑧-① 論文 p. 52.
拙稿: 前揭註 ⑧-① 論文 p. 69.

⑰ a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46의 上左
b 輕部慈恩: 前揭註 ③ 書 圖版 35의 2

- ① 拙稿：前掲註①論文 p.21.
 ②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圖 30
- ③ 金永培·朴容煥：公州西穴寺址에 關한 調査研究(Ⅰ) 百濟文化 第4輯 公州師範大學 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70
 ④ 安承周：公州西穴寺址에 關한 調査研究。百濟文化 第5輯。公州師範大學 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71
- ⑤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195。第43圖
 ⑥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圖 101
 ⑦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p.193—196。
 ⑧ 輕部慈恩：前掲註③書圖版 48의 4
 ⑨ 輕部慈恩：前掲註⑦書圖版 37의 右
 ⑩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圖 103
 ⑪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圖 104
 ⑫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圖 116、117
 ⑬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圖 187、188
 ⑭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東城王二十二年條「春 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云云
 ⑮ 輕部慈恩：前掲註③書圖版 50
 ⑯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96 第12圖
 ⑰ 輕部慈恩：前掲註③書圖版 46의 中右
 ⑱ 輕部慈恩：前掲註⑦書圖版 35의 3
 ⑲ 安承周：前掲註②—③論文 p.p.87—88 圖版 6
 ⑳ 金永培·朴容煥：前掲註②—③論文 p.p.26—28 圖 17、18、20、
 ㉑ 安承周：前掲註②—③論文 p.p.88 圖版 7의 1、2
 ㉒ 輕部慈恩：前掲註③書圖版 48의 上左 1
 ㉓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198 第45圖의 4
 ㉔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p.202—204
 ㉕ 金永培·朴容煥：前掲註②—③論文 p.p.27—28 圖 19
 ㉖ 安承周：前掲註②—③論文 p.88 圖版 7의 3
 ㉗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198 第45圖의 4
 ㉘ 秦長國立博物館：飛鳥白鳳の古瓦 圖版 6—17 東京美術 日本 1970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 數例 補

秦 弘 燮

筆者는 義城郡 安平面 石塔洞、安東郡 北後面 石塔洞、山淸郡 今西面 花溪洞에 각각 方壇式 石造遺構가 있어 이것을「考古美術」一一〇號①에 紹介하고 義城과 安東의 遺構가 位置한 地點의 地名이 모두 「石塔洞」이라는 점, 義城 遺構에는 第二段 四面에 龕室이 開設되어 各各 石佛이 安置되었고 安東遺構는 至近 距離에 「石塔寺」라는 古屋의 寺刹이 있어 지금도 香火를 올리고 있다는 점, 山淸 遺構는 「仇衡王陵」이라고 부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有三韓古刹 曰王山寺 寺後不數百步 疊石爲壇」이 라는 記錄으로 보아 寺刹과 관계된 遺構임이 분명하고 第四段 東面에 龕室이 開設되었다는 점 등을 綜合하여 「方壇式石塔」이라고 呼稱하였으 며 末尾에 가서

特異한 構造인 이들 遺構는 石塔 或은 舍利戒壇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나 그 分布地域이 安東·義城이라는 至近 距離에 同一한 遺構가 傳하고 떨어져 山淸에 類似한 例가 傳하는 點 또한 注目할 만하다. 고 맺었다.

그런데 筆者의 이 論文을 보았는지는 言及이 없으나 日本의 齋藤忠氏 가 一九七三年 義城과 安東의 石塔洞을 訪問하여 이 「方壇式石塔」은 實 査한 다음 그 旅行記를 日本 朝日新聞에 發表한 일이 있다. ② 이 旅行 記의 內容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1) 日本 岡山縣 赤磐郡 熊山町에 義城이나 安東에 있는 遺構와 全혀 同一한 遺構가 있다.

(2)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들과도 共通的 要素가 있다.